

제41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 수료자

Excellent Graduate of 41th Packaging Professional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가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 41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58명이 수료하여 지금까지 협회에서 배출한 포장관리사는 총 3183명이 되었다. 최종심의 결과 이민우 (주)유상 사원은 총 100점 만점에 97.2점을 받아 1등으로 수료하였다. 이어 이상호 (주)씨오텍 이사가 2등(96.8점)을, 엄태규 (재)한국품질재단 심사원이 3등(96.0점)을 차지하였다.

—편집자 주—

“교육 필요성 느끼던 시기에 시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민 우
(주)유상사원

Q. 제41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 성적 수료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장재에 대한 이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시기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포장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 교육을 통해 기존 지식의 정리와 새로운 내용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12주의 교육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우수 성적 수료자로 선정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연포장재 및 산업용 필름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유상에 2021년에 입사하여 연포장개발팀에서 4년차 재직 중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제작 및 대응하고 있으며, 물성 및 재질 분석을 통해 포장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이슈를 확인하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포장관리사교육은 연포장개발팀의 이덕재 소장님의 추천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업무를 진행하며 포장재에 대한 이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장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실무에 큰 도움이 되고, 연포장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장재와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기에 포장관리사 교육을 시작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 교육 중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교육 문제 중 '간략하시오'라는 자필 질문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하시오'라는 질문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마음 편히 길게 적을 수 있었지만,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질문을 구분하지 않고 배운 내용을 모두 적으며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 배우자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하여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받으면서 먼저 느낀 점은 포장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형식의 교육은 직장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유연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연포장재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포장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지만, 11권 분량의 교재를 통해 포장 기술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동료들에게도 이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포장재 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됩니다. 이론과 실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리와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상에서는 포장기술의 최신 트렌드 중 하나인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는 이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Q. 교육내용 중 보완하거나 추가할 점, 협회에 하고 싶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은 직장인들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잘 따라가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생소한 용어가 많고, 교육 자료가 문서로만 되어 있어

Interview

추가적인 자료 검색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고,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시각적 설명이 추가된다면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배우는 자세로 노력”



이 상 호
(주)씨오택이사

Q. 제41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 성적 수료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런 큰상을 주신 포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신 (주)씨오택 대표이

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2개월 정도 과제를 통하여 배움을 얻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회사와 저 개인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포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포장기계와 포장 관련 법규 교육은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톨투를 기계 전문 제작 업체인 (주)씨오택에 연구소 이사로 근무 중이며 기계 설비 및 장비 연구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특히 2차전지 관련분야와 디스플레이용 필름의 광폭, 고속화 작업에 특화된 기계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계를 설계, 제작하는 것 이외에 다양하고 높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대표님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

으며, 오랫동안 잊혀왔던 사회초년생의 다짐을 다시 실천하기 위해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 중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해외 장기 출장이 많지는 않지만, 저를 비롯하여 수강을 신청한 다른 직원도 출장용 가방에 교재는 필수로 지참하였고, 좋아하는 음주도 멀리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해외 출장을 마무리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주)씨오택은 수주의 절반 이상이 해외 수출이다 보니 특히 목재포장, 방수, 방습, 방청 등 포장기법에 관한 교재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포장업체에만 의존했던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교육기간 동안 교재를 통하여 포장 관련내용, 관련 법규, 이외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계를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적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배움이 있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점 받지 못해 아쉬움... No Pain, No Gain 실감”



엄 태 규
(제)한국품질재단 심사원

Q. 제41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 성적 수료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업무 특성상 주중에는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여 주말을 반납하고 가족들 눈치와 잔소리를 벗 삼아 보내온 지난 11주일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저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시간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교재 내용 습득과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 동안 자판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자필 작성은 그야말로 신선했고, 오른손의 손가락과 손목의 고통 그 자체였구요 ^^No Pain, No Gain이 실감나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네요. 다만 이제와 아쉬운 점은 만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Q.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재단법인 한국품질재단에서 식품안전/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Auditor)으로써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약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검인증기관에서 2차 심사(공급업체 심사)와 3차 심사(인증 심사) 업무를 18년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ISO 뿐만 아니라 FSSC 22000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식품제조 및 식품포장재 제조업체의 식품안전 및 품질 관리시스템을 심사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업무상 포장재 관련 업체 심사를 수행하는데 한국포장협회에서 주관하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커리큘럼이 포장산업의 제반 사항들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겸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FSSC 22000 식품포장재 업체 심사 자격(Category I Code)을 준비 및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 중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주말에 공부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아빠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아달라고 조르던 아이도 어느새 제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더군요.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교육과정을 통해 포장 기술 관련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 관련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심사원이라고 인식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부끄러운 반면 뿌듯했습니다.

Q.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포장 산업 관련 종사자 분들께서는 꼭 한 번 수강을 하시면 업무와 관련한 기초 및 실무 이론과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적절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계기로 시작을 하고 수료까지 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식품포장재 업체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께 이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ESG, 기후 변화 및 위기 등의 이슈에 직면해 있는 향후 포장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재생, 재활용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슈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기회가 놓여져 있을 것이라 생각되구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포장 산업의 앞으로의 리스크들을 극복하고 기회를 실현하는데 일조하는 실무 맞춤형 어드바이저 겸 평가자가 되고 싶습니다.

Q. 교육내용 중 보완하거나 추가할 점, 협회에 하고 싶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교재의 오타는 추가 감수를 통해 수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 일부 내용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WPO(World Packaging Organization:세계포장기구)에서 인정받는 교육 과정으로 등록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실 지도 조심스레 건의해 봅니다. 